

漢醫學과 道敎의 關係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李 秉 書 · 尹 暢 烈*

I. 緒 論

道敎는 中國이 낳은 二大文化(儒敎, 道敎)中 하나로서 儒敎가 哲學的, 宗敎的, 精神的, 內面的인 人間世界를 지배하는 文化인 反面 道敎는 順從的, 平等的, 女性的인 特性을 지닌 文化라 할 수 있다. 道敎의 窮極的인 目的은 不老長生の 神仙이 되는 데 있고, 그것을 爲해서는 仙藥의 開發이 必要하고 仙藥의 開發을 爲해서는 醫藥의 開發이 必然的이었다.

道敎書籍을 集大成한 文獻인 〈道藏〉을 보면 〈備急千金要方〉, 〈急救仙方〉, 〈黃帝內經素問, 靈樞, 太素〉, 〈葛仙翁肘後備急法〉 등의 醫藥書가 包含되어 있으며,¹⁾ 都²⁾는 “〈抱朴子〉, 〈神農本草經〉, 〈傷寒論〉, 〈肘後方〉 등도 모두 道敎 系統의 醫藥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들 書籍 가운데는 實로 韓醫學家들에게 매우 낮익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음을 보아 道敎와 韓醫學이 얼마나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抱朴子〉에서는 말하기를 “神農經에 가로되 上藥은 사람의 身體가 平安해지고 壽命을 延長시키며 올라서는 天神이 되어 上下를 敖遊하고 中藥은 養生을 하고 下藥은 治病을 위한 것이다.”³⁾고 하여 仙藥은 金丹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여 治病 以前에 養生을 強調하고 있다. 이는 곧 〈內經. 四氣調神大論〉의 “不治已病治未病”⁴⁾의 개념과 相通하며, 〈內經. 上古天真論〉 가운데 보이는 真人, 至人, 聖人, 賢人이라는 名稱과 그 行迹은 道家에서의 神仙들과 大同小異하니 道敎가 韓醫學과 얼마나 밀접한 關係가 있는지 알 수 있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 1) 〈正統道藏〉: 中文出版社, 日本, 18권 p.15071, p.15071, p.15382, 22권 p.18770, 22권 p.19235, 27권 p.23901.
- 2) 都光淳: 〈道敎와 科學〉, 比峰出版社, 서울, 1990, p.8.
- 3) 張永暢 譯: 〈抱朴子〉, 自由文庫, 서울, 1989, p.102. ‘神農經曰 上藥令人身安命延 昇爲天神 敖遊上下 使役萬靈……中藥養生 下藥除病’
- 4)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p.8.

道敎과 韓醫學이 모두 人間의 健康을 維持함과 壽命을 延長시키는 面에서는 공통되지만, 道敎는 疾病을 未然에 防止하여 不老長生하는 데 力點을 둔 反面 韓醫學은 治療醫學的 側面的 발전이 두드러지다 하겠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道敎와 관련된 醫學(表 2. 道敎醫學의 範疇 參考)을 道敎醫學이라고 表現하고 治病을 爲主로 汗(湯液, 本草, 鍼灸使用) 醫學을 韓醫學이라 表現하였지만, 兩者가 重復되는 面이 많으므로 事實上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論理 전개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나누어 論하고자 한다. 또한 道敎醫學이 매우 방대하여 그 실마리를 찾다보니 道家와 道敎의 發生 動機부터 研究하지 않을 수 없다고 思料되어 이번에는 우선 道家 및 道敎의 登場背景, 歷史, 醫家, 範疇 및 基礎醫學觀의 概論의인 部分만을 言及하고 詳細한 部分은 다음 研究로 미루기로 한다.

II. 本 論

1. 道家와 韓醫學

周代의 封建制度는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變革과 瓦解를 가져왔고 動搖 中인 政敎의 秩序 속에 儒家들에 對한 抵抗現狀으로 道家가 登場하였다. 政治的인 面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 下에서 道家가 싹틔었다고 하나, 그 基本原理 및 思想은 韓醫學과도 매우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道家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老子의 思想과 그의 뒤를 이은 莊子, 列子의 思想을 간단히 살피고 道家와 韓醫學의 聯關性을 論하였다.

1) 道家의 思想

a) 老子의 思想

老子는 우선 宇宙萬物을 生成한 核心的인 要素로써 ‘道’를 設定하였는데 道는 그가 말했듯이 쉽게 論理나 言語로 表現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⁵⁾ 그를 具體的으로 表現하기엔 매우 어려운 點이 있다. 道는 時間的으로 永遠한 것이오, 空間的으로 無邊의 크기를 지니고 있어서⁶⁾ 말로 表現할 수 없는 形體요, 物質로 存在할 수 없는 存在라는 것이다.⁷⁾ 그러나 天地보다 먼저 存在하여 獨立的인 行路를 運行하는 無窮한 生命으로 天下의 어머니 노릇을 한다 했으니⁸⁾ 그 本體는 ‘無’라고 했다.

5) 〈老子〉, 第1章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6) 上揭書: 第1章 ‘無名 天地之始’, 第41章 ‘大方無隅’

7) 上揭書: 第21章 ‘道之爲物 惟恍惟惚 惚乎恍乎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8) 上揭書: 第25章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無는 모든 存在의 母體가 되어 모든 實在, 即 有를 生成하고⁹⁾ 同時에 無는 모든 實在의 用이 된다고 했으니¹⁰⁾ 이를 예를 들어 풀면 수레바퀴에 있어서 서른 개의 바퀴 살이나 속바퀴, 그릇에 있어 찰흙으로 빚은 부분, 家屋에 있어 門이나 窓等은 事實上, 그 속바퀴에 있는 구멍(即, 無), 그릇 위에 있는 空間과 방안에 있는 空間을 위한 쓰임에 不過한 것이다.¹¹⁾ 바꾸어 말하면 수레바퀴에 붙어 있는 바퀴살, 접시에 빚어져 있는 찰흙, 房에 달린 門이나 窓等의 實在의 有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고 쓰려고 하는 것은 그 안 或은 그 위의 空間이란 事實이다. 때문에 有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無가 作用하는 까닭인 것이다.

이렇게 有를 生成하고 有의 쓰임이 된다는 無는 아무런 活動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活動을 하고 있는 格이어서 帝王의 干涉이 없더라도 萬物은 스스로 나서 스스로 變化하는 自化의 힘을 갖고 있다.¹²⁾ 여기서 人爲와 自然無爲의 懸隔한 對照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帝王을 포함한 人間은 땅의 法則을 본받고, 땅은 하늘의 法則을, 하늘은 道의 法則을, 道는 自然의 法則을 본받는 것이라 하여¹³⁾ 人爲는 虛妄한 힘에 不過한 것임을 老子는 主張하고 있다.

b) 莊子의 思想

莊子は 老子가 主張한 道의 原理나 法則을 그대로 繼承받아 道를 宇宙萬物生成의 基本要素로 보고 있으나, 그 生成發展하는 原理에 重點을 두어 萬物은 모두 씨를 지녔는데, 그 씨를 때 없이 움직이고 變化를 일으켜 마치 말을 달리듯이 한 瞬間이라도 옮겨가지 않음이 없다는 ‘生物應化說’을 여러 군데에서 強調했다.¹⁴⁾ 同時에 莊子は 老子보다도 道의 世界를 擴張하여 死生과 終始의 生命과 時間문제를 뛰어넘는 徹底한 萬物齊同思想으로 보다 積極인 言論을 펴서¹⁵⁾ “道는 뚝에도 오줌에도 기와나 벽돌에도 있다는 沉神論의인 思想¹⁶⁾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

c) 列子의 思想

列子は 宇宙가 自生自化한다는 老·莊의 原則의인 宇宙論을 踏襲하여 그 道를 天道, 物道, 人道로 多元化시킨 것이 새로운 試圖로 보이는데¹⁷⁾ 即, 天地, 萬物, 人間이 各各 分職하여 宇宙에 存在한다는 것이다.

9) 上揭書：第40章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10) 上揭書：第11章 ‘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11) 上揭書：第11章 ‘三十輻共一轂 當其無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12) 上揭書：第37章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13) 上揭書：第25章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4) 〈莊子〉：萬言篇 ‘萬物 皆種也’

至樂篇 ‘種有幾也’

秋水篇 ‘論萬物之理也 物之生也 若騾若馳 無動而不變 無時而不移’

15) 〈莊子〉：天下篇 ‘寂寞無形 變化無常 死歟生歟 天地竝歟’

16) 〈莊子〉：知北遊篇의 東郭子和 莊子의 問答

17) 〈列子〉：天瑞篇 ‘天地無全功 聖人無全能 萬物無全用 故天職生覆 地職形載 聖職教化 物宜所宜’

2) 道家와 韓醫學의 關係

a) 老子 一分爲三과 韓醫學 三陰三陽의 聯關

〈內經〉上에 陰陽을 각각 三分하여 論述한 部分이 매우 많은데, 三陰三陽의 開合 樞理論과 三陰三陽의 標本 中氣理論, 熱病의 三陰三陽 傳變의 理論이 모두 이것이다. 〈素問·熱論〉¹⁸⁾에 陰陽이 一分爲三하는 理論이 있으니 三陽病을 太陰 少陰 厥陰으로 나누어 陰陽消長の 三個段階를 表現하였으며, 이것이 傷寒論의 三陰三陽 理論의 基礎를 提供하였는데 〈道德經〉에 말하기를 “道生一, 一生二,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爲和”¹⁹⁾라 하여 一分爲三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韓醫學 三陰三陽 理論에 影響을 준 것이라 思料된다.

b) 老莊의 坤柔虛靜觀念이 韓醫學에 미친 影響

老莊의 道家에서는 〈易經〉의 坤卦를 처음에 두니 “坤은 地를 象하고 靜을 主하며 性は 柔和 牝馬에 屬하고 性は 陰”²⁰⁾으로써 韓醫學의 柔順養陰으로써 主要宗旨를 삼은 養陰派에 影響을 미쳤다고 思料된다.

c) 老子的 虛靜觀念이 韓醫學에 미친 影響

老子的 虛靜觀念도 韓醫學의 養生學中에 插入되었는데, 老子的 虛靜觀念이 自然無爲를 標榜하였으니, 이른바 自然無爲라는 것은 自然에 順應하는 것을 指稱하니, 韓醫學의 四時에 順應하여 養生防病하는 觀點과 老子的 自然無爲는 一致하는 點이 있다. 〈素問·上古天真論〉에 말하기를 “上古有真人者 提契天地 呼吸精氣 獨立守神 此其道生”²¹⁾이라 하고 그 中에 ‘修真之道’ ‘恬憺虛無’ ‘精神內守’ ‘淫邪不能惑其心’²²⁾이라 한 것과 道家에서 말하는 ‘無欲’ ‘清靜’의 觀點은 서로 같은 脈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素問·四氣調神大論〉의 四時에 順應하는 養生과 老子的 ‘自然無爲’는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內經〉에 말하는 ‘虛無’라는 것과 〈老子〉의 ‘無欲은 모두 正常生理本能慾望을 抑制하는 것이 아니고 非正常, 非道德, 非人性的 邪慾을 防止하는 것으로 道家에서 ‘無爲’라고 한 것은 實로 ‘無不爲’이며, 〈內經〉의 ‘恬憺虛無’는 韓醫學 養生의 宗旨로써 道家와의 聯關性은 물론 韓醫學 全體에 至大한 影響을 주고 있다고 思料된다.

d) 道家와 韓醫學 中の 精氣學說

韓醫學을 氣醫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程度로 精氣라는 것은 韓醫學家에 있어서 一般化 된 것이다. 道家에서도 이 氣에 對해 매우 強調하고 있으니 老子的 ‘道生一’이라는 ‘一’字는 곧 元氣를 指稱한다고 보며, 〈莊子〉에서도 말하기를 “人之生 氣之聚也 聚即爲生 散即爲死 故曰

18)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 155. “傷寒一日 巨陽受之……六日厥陰受之”

19) 〈老子〉: 第42章

20) 〈周易〉: 坤卦 ‘坤元亨利牝馬之貞……’

21) 前掲書: 서울, 成輔社, 1983, p. 1.

22) 前掲書: 서울, 成輔社, 1983, p. 1.

通天下一氣耳”²³⁾라 했고, 또 <管子·知北遊篇>에 말하기를 “精也者 氣之精者也”라 하고 <管子·內業篇>에 말하기를 “精存自在 其外安榮 內藏以爲泉源 浩然和平 以氣爲淵 淵之不涸 四體乃固”라 하여 精氣가 人體에 매우 重要함을 強調하였으며, <管子·心術篇>에 말하기를 “氣者 身之充也”²⁴⁾라 하여 韓醫學에 매우 큰 影響을 미쳤으니 <內經·金匱眞言論>에 말하기를 “夫精者 身之本也”²⁵⁾라 하고 <難經·八難>에 말하기를 “氣者 人之根本也”²⁶⁾라 한 것이 이와 서로 通하는 部分으로써, 精氣가 곧 萬物을 構成하는 基礎가 된다고 強調한 것이다.

精氣學說에 對해서는 道家書籍 및 韓醫書籍에서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詳細한 研究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韓醫學이 哲學的인 面으로는 道家의 影響을 크게 받았음은 前述한 바와 같은데, 이것이 民間信仰으로써의 道敎로 發展함으로써 보다 더 實踐的이고 具體化되어 一般大衆에 퍼져 나갔는데 그 根本이 不老長生한다는 神仙에 對한 憧憬으로 始作되었으므로 “不治已病治未病”한다는 韓醫養生學과 密接한 聯關을 갖는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다음에 道敎醫學의 基礎觀에 對해 論하였다.

2. 道敎와 韓醫學

1) 道敎의 歷史概觀

周代로부터 宗教系에 있어 政敎不分의 神道는 王政爲本의 人道로 轉換되었으며, 새로운 禮樂의 發展은 原始宗教를 代身하였다. 卽 宗教的인 生活에서 禮義的인 生活로 大轉換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心靈上 生命上의 空虛를 느낀 나머지 따로 그 空虛를 메울 것을 追求했으니 바로 道敎의 發生을 가져온 것이다.

東漢末年 于吉²⁷⁾에 의한 太平淸領道, 張陵에 의한 五斗米敎, 或稱 鬼道の 提唱에 이르러 道敎가 비로소 하나의 宗教性 團體를 이룩했지만 그 以前의 自然的인 發展過程과 그 原因은 이리 했다.

첫째는, <莊子>의 逍遙遊篇에 나오는 藐姑射之山(막고야지산)의 神仙에 對한 寓話²⁸⁾에서 人間 연화를 먹지 않고 長生不老한다는 神仙에 對한 憧憬에서 始作되었다.

둘째는, 이러한 求仙思想은 渤海沿岸에서 恒常 蜃氣樓를 볼 수 있고, 海上의 三神山傳說이 盛行한 燕·齊 두 나라에서 道敎의 發足에 拍車를 더하였다.

23) 許世旭: <莊子>, 서울, 徽文出版社, 1984.

24) 石一參: <管子今詮>, 北京, 中國書店, 1988, p. 19, p. 33.

25) 上揭書: 서울, 成輔社, 1983, p. 20.

26) <難經譯譯>: 昭人出版社, p. 21.

27) <道敎大辭典>: 臺北, 巨流圖書公司, p. 50.

28) “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淖約若處子 不食五穀 吸風飲露 乘雲氣 御飛龍而遊乎四海之外”

세제는, 비록 禮樂의 發達로 衰微했던 巫覡과 巫術은 漢朝가 中國을 統一한 뒤 精神上的의 空虛를 救濟받기 위하여 또 다시 興行했으니 民間에서 符呪의 法術을 觸染시키게 되었다.

네째로, 秦漢 兩代에 군출했던 方士들의 長生不老에 對한 氣風이 道敎를 促進했다. 秦始皇이 琅琊方士(낭야방사)의 말을 듣고 바다에 들어 神仙과 不死의 藥을 求했음을 비롯하여 漢武帝가 높은 누각을 짓고 神仙을 求했다는 風潮 등이 이를 說明한다.

以上 네 가지 原因 中 첫번째의 老莊學說과 두번째의 求仙思想, 네번째의 秦漢 方士들의 不老長生の 氣風은 韓醫學과도 매우 密接한 聯關을 맺게 된 道家의 淵源이라고 思料된다.

a) 漢末의 道敎

그 後 漢末에 이르러서는 모두 方士와 接近을 願하여 特別한 藥餌로 不老長生을 祈禱하는가 하면 巫覡과 往來를 緊密히 하면서 疾病과 災殃의 威脅을 逐出하려 했다. 이런 努力이 어느 敎主를 中心하여 하나의 道黨을 集成하고 그 가르침을 퍼기에 힘을 모을 때 드디어 宗敎로써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順帝 때 琅琊(낭야)땅 于吉²⁹⁾이 陰陽五行을 宗旨로 삼고 巫覡들의 雜論을 集成하여 <太平清領書³⁰⁾>를 著作하고 이에 무리를 모아 太平清領道를 發足했으니 이것이 道敎運動의 嚆矢였다. 그 뒤를 이어 豊邑땅 張陵이 <道論24篇³¹⁾>을 著作하여 가르침을 펴기엔 그를 좇을 자 싹 닳말을 貢納토록 했기에 五斗米道라고 했다. 이들은 符水³²⁾로 病을 고치고 老子의 <道德經>을 읽히고 칼과 도장, 都功錄 등으로 布敎하는 法寶를 삼았으니, 이들 이른바 鬼道는 그의 아들 張衡과 孫子 張魯, 그리고 曾孫子 張盛까지 布敎를 거듭하다가 張盛에 이르러 그 勢力이 가장 興盛하여 그 舞臺를 江西省 貴溪에 있는 龍虎山으로 옮기고 張陵은 天師로 推戴하고 張盛은 스스로 敎主가 되었다.

그들의 敎義는 政府와 民間에 깊이 浸透하여 드디어는 老子의 無爲自然을 崇法하는 上品과 修練과 藥餌服用으로 長生不老를 追求하는 中品, 그리고 符錄³³⁾으로 災禍를 막는 下品 등 세가지 階層으로 나뉘어 事實上 禮樂化, 祀祖化, 民俗화된 信仰과 意識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道敎에 混合될이만큼 勢力은 蔓延되었다.

b) 魏晉南北朝時代의 道敎

道敎가 그 方術의 方式이나 經籍의 出版 등으로 가장 活發했던 魏晉南北朝(위진남북조)에 魏伯陽³⁴⁾과 葛洪을 中心으로 한 丹鼎派³⁵⁾와 陶宏景과 寇謙之³⁶⁾를 中心으로 한 符錄派³⁷⁾로 나뉘

29) <道敎大辭典>: 臺北, 巨流圖書公司, p. 50.

30) <正統道藏>: 卷21, p. 17529.

31) 前揭書: 卷19 p. 16482.

32)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66, p. 926.

33) <道敎大辭典>: 上揭書, p. 503.

34) 前揭書: p. 675.

35) 前揭書: p. 35.

었다.

그 中에서도 丹鼎派는 呼吸을 通해 內在의인 精, 氣, 神을 保存한다는 內丹術과 磁石水銀 等 藥物로 鍊制한 金丹을 服用하므로써 神仙이 된다는 外丹術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人間의 本性을 培養한 채 모든 疾病을 除去하고 千年長壽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內丹術 및 外丹術에 對해서는 뒤에 詳述하기로 하고, 한편 張陵에게서 創始되어 陶, 寇, 兩氏에 依해 大成된 符錄派는 符錄의 利用으로 治病, 消災避邪를 한다는 主張으로 一貫된 바 陶氏의 導引辟穀³⁶⁾ 方法과 寇氏의 天師道³⁷⁾ 提唱이 그 方法의 一環이다.

符錄派는 多小 迷神의인 面이 없지 않으나 丹鼎派는 어느 程度 科學的인 養生方法으로써 韓醫學에도 큰 影響을 미쳤으므로 注目할 만하다.

c) 魏晉南北朝 以後의 道敎

遼·金代에는 다시 修性을 主張하는 南宗派⁴⁰⁾와 酒宴을 禁節하고 出家하여 修命을 主張하는 北宗派⁴¹⁾로 나뉘었는데, 그 中 北宗派는 全眞敎로 發展하여 元代에 盛行했다.

全眞敎의 興起로 道敎가 普及되자 相對的인 敎理를 들고 나온 張天師一派의 正一敎는 집에서 妻子를 거느리고 酒肉을 먹는 參與의 傾向을 띠기도 했으나 四川을 中心으로 南方에 遊行한 金丹敎의 活躍도 빼놓을 수 없다.

宋代에도 <道藏>⁴²⁾을 刊行했고 明代엔 5,500冊이나 되는 <正統>, <萬歷> 等⁴³⁾ 두 가지 道藏을 刊行하여 文獻으로 볼 때 重要한 宗教的 役割을 擔當했다.

清代에는 그 初起에 많은 道敎의 支派가 亂立했지만 重要한 敎勢로는 道光間에 西江尋鄔(서강심오)에서 廖帝聘(오제빙)이 創立한 眞空敎를 들 수 있다. 그들은 敬拜의 意識을 가지면서도 偶像을 崇拜했고 治病을 傳道의 方法으로 쓰자 江西, 福建, 廣東等地에서 盛行했다.

그 後 清朝의 道敎에 對한 輕視 때문에 비록 衰落되었지만 오늘날도 中國의 南方 및 海南島와 臺灣等地엔 玉皇이나 老子를 모시는 절은 아직도 많은 民間을 그 믿음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d) 道敎에서 敬拜하는 神

그들이 敬拜하는 神은 世界 어느 宗教보다 復雜하다. 天神, 人鬼, 地祇, 仙人 等으로 分類되는데, 그들은 方術을 運用하는 데 重點을 두었지 神에 對한 眞實한 追求에 重點을 두진 않았다.

36) 前掲書 : p. 255.

37) 前掲書 : p. 503.

38) 前掲書 : p. 591.

39) 註 36) 參考.

40) 前掲書 : p. 149.

41) 註 40) 參考.

42) 前掲書 : p. 601.

43) 前掲書 : p. 392, 明代 英宗正統10년에 刊行된 것을 <正統道藏>이라 하고, 萬歷十年에 刊行된 것을 <續藏經>이라 하는데 冊의 編次는 千字文의 글자를 빌어 使用했는데 <正統道藏>은 天字—英字까지이고, <續藏經>은 杜字—纓字까지이다.

天神은 元始天尊⁴⁴⁾, 人鬼는 太上老君, 地祇는 豊都北陰大帝⁴⁵⁾, 仙人은 赤松子⁴⁶⁾ 같은 것이거늘 그 中 最高의 尊敬을 받는 祖師는 老子로써 至尊無上의 神變無方한 神人으로 君臨하고 있다. 老子는 純粹한 하나의 哲인이었는데 魏晉 以後 純粹한 哲學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民間迷信으로 轉落한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다.

e) 老子 以外的 神仙 人物

鬼谷(귀곡)⁴⁷⁾, 王子喬(왕자교)⁴⁸⁾, 赤松(적송), 伯夷(백이), 叔齊(숙제), 孔子(공자), 顔子(안자), 莊子(장자), 墨子(묵자), 屈原(굴원)⁴⁹⁾, 孫權(손권), 王弼(왕필), 周公旦(주공단) 등이 等場되었다.

3. 道教醫學의 概括

1) 道教醫學의 範疇

‘道教醫學’이란 道教를 側面으로 한 醫學인 바 이들은 주로 道教經典 속에서 보여진다. 그러나 道教가 現在로는 다른 宗教와 뒤섞여서 民間信仰으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道教醫學은 民間療法の 形態 속에 남아 있다. 이 道教 醫學은 다음의 세가지 範疇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 a) 範疇 1; 現在 韓醫學과 거의 같은 內容을 가진 部分인데, 湯液, 本草, 鍼灸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兩者의 가장 가까운 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또 道教의 한 特色이기도 한 外丹 術도, 이에 使用되는 鑛物類가 本草學에 屬하므로 이 領域에 包含시켜 보았다.
- b) 範疇 2; 道教醫學의 特徵을 가진 部分인데, 導引, 調息, 內丹, 辟穀, 內視⁵⁰⁾, 房中 등이 包含되어 所謂 ‘養生術’ 과도 가까우며 自力的인 傾向이 強하다.
- c) 範疇 3; 가장 道教의이며 神秘的인 內容으로서 巫的 要素가 들어 있으며 民間信仰, 民間療法에 關係되는 部分이다. 符, 占, 籤⁵¹⁾, 呪, 齋, 祭祀, 祈禱, 禁忌 등 多分히 戒律的 倫理的이며 他力的 傾向이 甚다. 所謂 符籙派(부록파), 積善派(적선파)⁵²⁾, 또는 點驗派(점험파)⁵³⁾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支持를 받는 部分이며 또한 信仰療法으로서의 面도 強하다. 道教醫學은 韓醫學의 範圍를 훨씬 넘는 復雜한 것인데 위의 세 範疇 中 첫번째는 現在 韓醫學에서 一般的으로 다루는 部分이고, 두번째는 道教醫學 中에서도 現在 脚光을 받고 있는 丹

44) 前揭書 : p. 94.

45) 前揭書 : p. 610.

46) 前揭書 : p. 581.

47) 前揭書 : p. 672.

48) 前揭書 : p. 457.

49) 前揭書 : p.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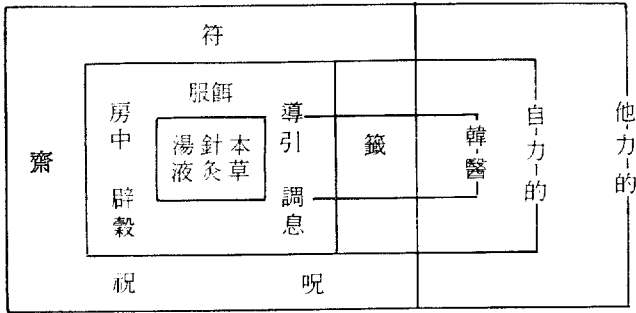
50) 前揭書 : p. 97.

51) 前揭書 : p. 119.

52) 前揭書 p. 498.

53) 前揭書 : p. 152.

〈表 1〉 道敎醫學의 範疇



田呼吸이나 氣功을 包含하며 세번째의 範疇의 것보다 科學的이라 하겠고, 마지막 範疇는 信仰的 側面이 强하므로 韓醫學과는 多小 거리가 멀다 하겠다. 다음에 道敎醫學의 세 範疇를 圖表化하였다.

2) 道敎醫學의 歷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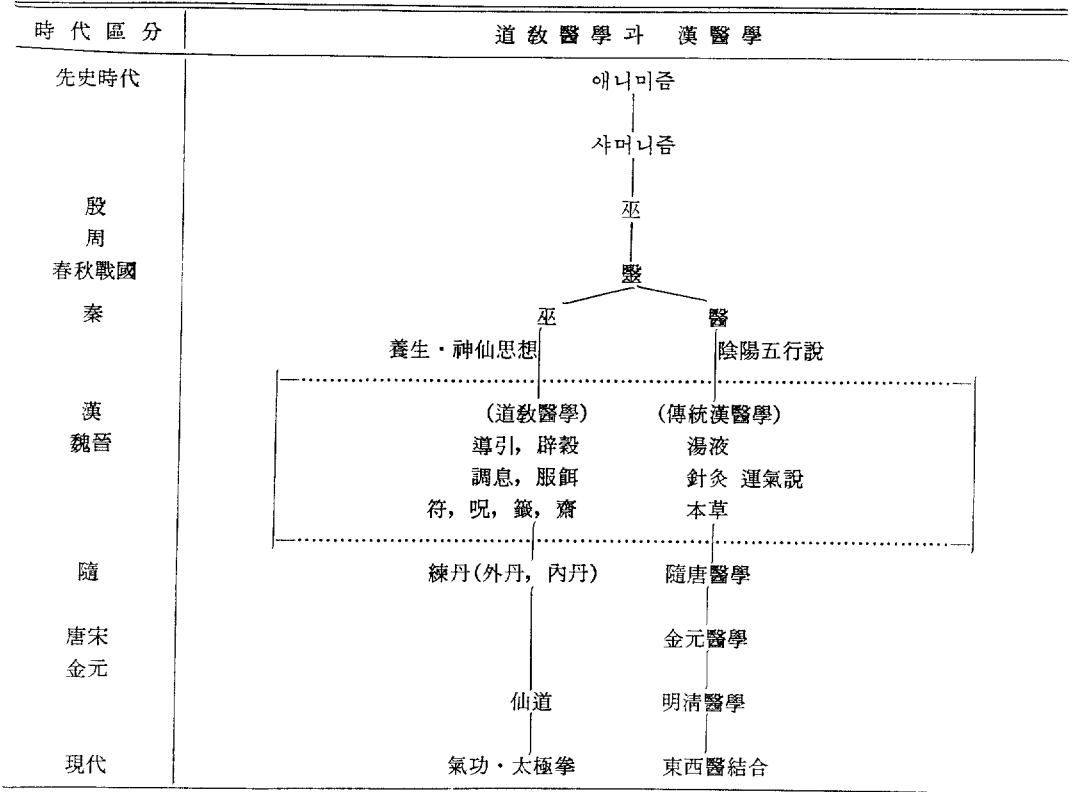
有史 以前에는 世界的으로 古代信仰의 始作은 萬物에는 神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이었는데, 그 根本은 多神敎(다신교)와 連結되고 있다. 그것이 素朴한 信仰일수록 强하고 더욱이 긴 歲月 동안 人們의 마음에 깊게 자리잡았던 것이다. 천둥 번개에 놀라고, 비를 오라고 빌며, 豐年을 期待하며, 病은 天神이 내리는 것이라 믿었다. 天人相感, 天人相應의 思考가 여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東北아시아 地方에는 옛부터 ‘샤머니즘’이라는 民間信仰이 있었다. 이를 行하는 샤먼은 特異한 民族衣裳을 몸에 걸치고 북을 치며 神의 代理人으로서 自己陶醉에 빠져 神靈을 불러 들인다. 天空에 날아올라 天界의 神靈과 交流하며, 그래서 病을 고치기도 하고 卜占(복점), 豫言을 行하기도 한다. 中國에서는 巫(巫: 무당. 남자의 경우는 覡이라 부르기도 함)라고 부르는데 祭政一致 時代에는 醫術, 祭祀, 魔術 等を 行했다. 이 때 무당은 醫術도 行했으므로 巫醫(무의)라고도 했다. 醫란 글자는 옛날에는 ‘醫’로도 쓰였는 바 巫와 醫는 完全히 같은 것이었다. 〈史記. 扁鵲傳〉에는 “여섯 가지의 疾病이 낫지 않는 原因 가운데 하나는 巫를 믿고 醫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음을 볼 때 戰國時代 末期에는 巫와 醫의 分類는 一旦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巫醫라는 말은 그 뒤에도 使用되고 있고 元明時代 까지 祝由科(축유과)⁵⁴⁾가 있었으며, 現在에도 童亂⁵⁵⁾ 등의 存在를 보면 巫의 影響은 아직도 繼續 남아 있다 하겠다.

巫的인 醫術의 部分은, 하나는 經驗을 거듭해서 漸次 體系化, 理論化되고, 그 後 陰陽五行說⁵⁶⁾, 經絡理論 등이 合流되어 現在의 韓醫學으로 되었다. 祭祀는 信仰에서 宗教로, 魔術은 房

54) 前掲書: p. 488.

55) 前掲書: p. 123, 臺灣에서 民間信仰 從事者의 하나로서 이에는 守護神, 三奶婦人, 玄天上帝 등이 있어 靈妹로서의 機能을 擔當한다.

〈表 2〉 道教醫學과 韓醫學의 歷史



術로 되었으며, 神仙說이나 黃老思想⁵⁷⁾과 接觸하였는데 이 兩者는 宋·漢代末에 道教를 誕生시키고 神仙說이라고 불렸으며, 方士는 道士라는 모습으로 되어 民間信仰의 形態로 時代와 더불어 變해 갔다.

한편, 醫的 關係에서는 醫學이라는 길에서 뒤떨어지게 된 巫醫的인 醫術部分은 養生思想等과 接觸하면서 道教醫學과 民間信仰으로 바뀌어 갔다.

다음에 道教醫學과 韓醫學의 歷史를 簡略히 圖表化하였다(表 2. 道教醫學과 韓醫學의 歷史 參考).

3) 道教와 관련있는 韓醫學家

都에 依하면 “〈雲笈七籤(운급칠첩)〉에는 道士 醫士라는 單語가 實在로 나오는데, 이 둘은 完

56) 洪元植：〈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64.

陰陽五行說의 定立：現存한 文獻을 詳考해 보면 紀元前 千年以前 作品으로 보는 周易, 書傳, 詩經, 周禮, 周髀算經 等書에 記載되어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57) 〈道教大辭典〉：前掲書, p. 686.

“黃老 謂黃帝與老子也 黃老爲道家之祖 世因稱道家曰黃老”

全히 같거나 極히 가까운 關係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는바, 오랜 中國의 歷史에서 道敎와 韓醫學 사이를 살아온 醫師는 魏, 晉, 南北朝時代, 唐代에 많았고 또한 빛을 發하고 있으며, 明·清代에도 이 方面에 깊이 關係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들 醫師와 그들의 行迹 中 道敎와 關聯된 部分을 《道敎大辭典》, 《中國醫學史》, 《道敎와 科學》으로부터 뽑아 다음에 列舉하였다.

扁鵲(편작) : 巫術과 迷信을 反對하여 ‘六不治’의 思想 가운데 “信巫不信醫者不治”라는 內容이 있다.

華佗(화타) : 體育鍛練으로 體質을 增強시켜 疾病을 防止할 것을 主張함. “人體는 勞動해야 하는데 다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된다. 運動하면 穀氣가 消化되고 血脈이 流通하여 病이 생기지 않는다. 비유컨대 戶樞(문지도리)가 썩지 않는 것과 같다”고 指摘하였으며, 虎, 鹿, 熊, 猿, 鳥의 動作과 姿態를 模倣하여 肢體를 活動하는 一連의 ‘五禽戲’를 創制하였다.

黃甫謐(황보밀) : 中年에 風痺症에 걸려 服石을 하여 身體가 極度로 虛弱해져서 寢床을 甦으며 심지어 自殺을 하려고까지 하였다.

董奉(동봉) : ‘神仙傳’ 등에도 나오는 人物으로써, 治療時에 報酬를 取하지 않고 다만 治療된 사람에게 그의 門前에 杏樹를 심게 하여, 日久하니 杏樹가 수몰을 이루었다. 後世에 醫家를 稱頌하여 ‘杏林春暖’ ‘譽滿杏林’이라 함이 이로부터 來源한 것이다.

許孫(허손) : 許眞君, 慈濟眞君이라고 불리는데, 恒常 符呪를 治病에 兼用하다가 뒤에 白日升天하였다.

葛洪(갈홍) : 《抱朴子》라는 著書 이름이 높다. 처음으로 道敎의 理論的 展開를 完結했다.

陶弘景(도홍경) : 導引方面에서는 《養生延命經》⁵⁸⁾, 《養生經》⁵⁹⁾을 撰하고, 煉丹化學方面으로는 葛洪의 뒤를 이은 著名人物로서 그의 《古今刀劍錄》의 머리에 記錄된 ‘雜煉生鏐’의 灌鋼煉鋼法은 鋼鐵의 冶金方面에 相當한 歷史的 價値가 있다. 그는 儒, 佛, 道 三種의 思想的 影響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남긴 道敎經典으로는 《登眞隱訣》⁶⁰⁾, 《眞誥》⁶¹⁾, 《眞人位業圖》 등이 있고 醫書로는 《肘後百一方》, 《養生延命錄》, 《神農本草經集註》 등이 있다.

曇鸞(담란) : 처음에는 陶弘景에게 가르침을 求했으나 뒤에 깨달은 바가 있어 佛敎에 歸依, 淨土宗의 主要人物이 되었는데, 그가 지은 《調氣治療方》, 《療百病雜丸方》은 道敎의 色彩를 띤 冊名인데 안타깝게 傳하여지지 않는다.

孫思邈(손사막) : 그가 使用한 硫黃伏火法則은 中國 最初의 火藥配方이 되었으며, 이 밖에 採藥, 炮炙, 針藥併用の 經驗에 至대한 貢獻을 하였고, 現在에도 靈醫藥王(영의약왕)으로써

58) 《正統道藏》: 京都 中文出版社 1972 16卷 p. 13314.

59) 上揭書: 16卷 p. 13250.

60) 前揭書: 6卷 p. 4532.

61) 前揭書: 18卷 p. 14787.

醫藥神 中 最古로 尊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다.

韋慈藏(위자장) : 唐나라 朝廷에서 ‘藥王’이라는 稱號를 받았는데 生前에 ‘藥王’으로 된 사람으로는 그 혼자 뿐이다.

王氷(왕빙) : 少年時節부터 養生法을 즐겨 探究하였으며, 成長後엔 醫學研究에 沒頭하였고 玄珠先生에게 師事하여 啓蒙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號를 啓玄子로 지었다고 하는데 道家에서 즐겨 쓰는 玄字를 使用한 것으로 볼 때 道家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劉完素(유완소) : 字가 守眞이며, 自號가 通玄處士로써 道家와 關聯이 깊다고 보이며, 後에 明 武宗이 病들었을 때 그 夢枕에 나와 治療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民間에서 醫術을 行하여 群衆들로부터 歡迎을 받았다.

朱丹溪(주단계) : 〈格致餘論〉에서는 養生을 敍述하고 있으며, 그의 故鄉 땅에서는 丹溪廟가 있고 ‘朱半仙’이라 하면서 信仰되었다. 또한 그는 幼年時부터 四書五經과 程朱理學을 學習하였다는 記錄으로 보아 儒家의 影響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時珍(이시진) : 先人の 錯誤를 否定하여, 服食, 煉丹 等の 迷信, 邪術에 對하여서 猛烈한 攻擊을 하였다. 그가 지은 〈奇經八脈考〉는 道教徒들에게도 重要한 內容을 다루고 있다.

趙學敏(조학민) : 그가 지은 〈串雅內外篇〉이 있는데 ‘內經’의 序文에 〈道藏〉까지 엮었다고 하였다.

吳杰(오걸) : 〈理論論文〉이라는 外治法의 冊을 完成, 그 끝의 ‘附篇治心病’에서는 積善이나 改過를 말하고, 最後로는 ‘靈山吟’이라는 道士의 氣象을 欽慕한 詩로 끝내고 있다.

4. 道教醫學의 基礎醫學觀

1) 道教醫學의 身體觀

人間을 小宇宙로 보고 이를 大宇宙와 對比시키고 있는 바 天人相感, 整體觀 等 韓醫學思想과 結치는 面이 많다.

〈抱朴子〉(이 외에 〈無上秘要〉⁶²⁾, 〈雲笈七籤〉, 〈稟生壽命〉)에 “人間의 몸은 한 나라를 본뜨고 있다. 가슴과 배는 王宮, 四肢는 國境, 머리나 關節은 百官, 精神은 君主, 血은 臣, 氣는 民과 같은 것이다.”⁶³⁾라고 하였고, 〈道樞〉⁶⁴⁾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平平한 것과 같이 人體도 心臟은 둥글고 腎臟은 平平하다. 하늘과 땅이 八萬四千里인 것과 같이 心과 腎의 거리도 八寸四分이며, 心과 腎은 天地에 比較된다.”고 하여 韓醫學人體觀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62) 前掲書 : 21卷 p. 18036.

63) 張泳暢 : 前掲書, p. 48.

64) 〈道教大辭典〉 : 前掲書, p. 600.

2) 身 神

道敎醫學의 解剖學이라고 할 만한 것 中에 ‘身神’이 있다. 修道를 하는 者는 存思⁶⁵⁾內觀에 依해 病이 있으면 그 病의 部位에 相當하는 神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神을 부르고, 그 存在를 생각하고 交流하여 身體의 平衡, 調和를 圖謀하고 病邪의 進入을 防止하고, 病을 治療함으로써 道敎가 目的으로 하는 不老長生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都에 依하면 “身神의 數는 《太上老君玄妙枕中內服神呪經》, 《太上老君說常清經註》, 《氣法要訣》等에는 3萬6千이라 하고, 《道樞, 第27卷》에 依하면 肝神 3萬6千, 肺神 1萬2千, 脾神 8萬4千, 腎神 5萬이라고 되어 있고, 《黃庭外景經》에는 몸에 360神이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五臟神에 對해서도 그 後 다시 肝, 心, 腎神에다가 膽神을 보탠 것이 《登眞隱訣》, 《上清衆經諸眞聖秘》, 《太上黃庭內經玉經》, 《黃庭內景經》, 《四氣攝生圖》, 《上清迎神飛登空招五星上法經》等에 보인다(表 3 參考)고 하였으며, 頭部九宮에 對해서도 說明하였는데 頭部九宮이란 明堂宮, 洞房宮, 丹田泥丸宮, 流珠宮, 玉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 等を 말하는데 여기의 身神은 《黃庭內景玉經註》, 《登眞隱訣》, 《無上秘要》等 20餘個의 經典에 보이는데 各各의 書籍마다 若干의 同異가 있다.”⁶⁶⁾고 하였다.

〈表 3〉 五臟神名(上段의 神名은 〈雲笈七籤〉, 下段은 〈太上黃庭內景玉經〉에 依한다)

	區分	神 名
肝神	五臟神	青龍 字惡龍子方 龍烟(煙) 字含明
心神	〃	豪丘 字陵陽子明 丹元 字守靈
肺神	〃	方長宜 字子元 皓華 字虛成
腎神	〃	雙以 字林子 玄冥 字育嬰
脾神	〃	黃庭 字飛黃子 常在 字魂庭
膽神	〃	龍耀(曜) 字威明

〈表 4〉 五臟陰陽 關係의 身神名 (〈紫黃鍊度玄科〉)

腎神	玄眞君 字育嬰
膀胱神	太虛君傳送
心神	丹元君 字守靈
小腸神	太靈君 字水谷
肝神	龍淵君 字合明
膽神	龍耀君 字威明
肺神	皓華君 字虛成
大腸神	元王君 字治和
脾神	常在君 字安停
胃神	靈源君 字太倉

3) 二十四神

都에 依하면 “身神의 數는 더욱 더 늘어가고 또 複雜하게 되어 三部, 八景 二十四神을 낳는다. 《黃庭內景玉景註》에서는 三丹田의 세 곳에 各 八人의 眞神이 있고 二十四人의 神이 있다고

65) 上掲書：p. 244.

66) 都玘淳：前掲書，p. 132.

한다. 〈眞誥〉, 〈無上秘要〉外에 12個의 經典에서 보인다. 그 밖에 〈洞眞八帝妙精經〉은 3神, 〈太上老君神經〉은 5神, 〈道樞〉는 11神, 〈靈寶領教濟度全書〉는 15神, 〈上清靈寶大法〉은 18神, 〈上清太山開天龍蹻經〉은 30神, 〈無上秘要〉는 39神, 〈太上說玄天上聖眞武本傳神呪妙經〉은 가장 많은 67神의 이름을 적고 있다. 이들 身神의 大部分에는 그 몸의 길이, 입고 있는 옷의 色等도 記載되어 있다. 또 〈靈藥大全〉卷2948, 〈西陽雜俎〉, 〈釋神〉等에도 身神에 關係 적혀 있다. 〈上清大洞眞經〉은 身神과 所謂 內丹術을 結付시키는 經典이다.”⁶⁷⁾라고 하였다.

4) 三尸說

三尸說은 道教에 關係되며, 그 治療法으로 말하면 韓醫學과도 關聯되는데, 〈抱朴子〉에서는 말하기를 “身中에 三尸가 있는데 그의 存在는 비록 形體는 없으나 實은 靈魂鬼神의 무리에 屬하는 것으로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것이다. 이 尸는 언제나 鬼神이 될 수 있어서 스스로 放縱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올리는 祭祀의 祭物을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庚申日마다 上天하여 司命에게 사람의 過失을 報告한다. 또한 上天하여 사람의 罪狀을 報告한다. 그래서 큰 罪는 紀를 빼았는데 紀는 30日을 말하고 작은 罪는 算을 빼았는데 算은 3日을 말한다. 내가 이 일의 有無를 살필 수 없으나, 天道는 邈遠(막원: 深奧하다는 뜻)하고, 鬼神의 일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⁶⁸⁾라고 하였는데 三尸에는 上, 中, 下가 있고 그 名稱과 形體도 各各이다(表5 參照). “〈修眞十書〉, 〈太上老君說常清靜妙經纂圖解註〉, 〈太上諸三尸九蟲保生經〉, 〈金碧五相類參同契〉, 〈道樞〉, 〈中山玉匱服氣經〉, 〈金丹訣〉, 〈上清元始譜錄太眞玉經〉, 〈中山玉匱服氣消三蟲訣〉等에 그 同異를 볼 수 있고, 〈太上感應篇〉에도 보이는데 그 어느 것이나 人體에 危害를 주는 것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庚申信仰이 創立되었다”……“庚申日엔 三尸가 몸 안으로부터 뒤흔어나 上天하기 때문에 그것을 防止하기 위해 一家의 家族들이 徹夜를 하여 잠을 자지 않고 여러가지 宗教의 行사가 이루어졌다.”고 各各 記錄되어 있다.

5) 九蟲說

지금의 條蟲(조충: 白蟲 또는 寸白蟲), 蛔蟲(회충: 虵蟲), 蟻蟲(요충: 蟻蟲)과 같은 것이 있는데 奇生蟲의 概念과 極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九蟲圖에 關해서는 〈太上諸三尸九蟲保生經〉에 보인다(表6 參照). 또 都是 말하기를 “三尸九蟲에 對한 治療法으로는 辟殺法, 內服法, 服氣調息法, 呪祝法, 符 等を 들 수 있다. 그 中 內服法이 가장 效果의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니, 〈太上諸三尸九蟲保生經〉, 〈長生胎元神用經〉, 〈雲笈七籤〉, 〈庚申部〉等을 보면 貫衆, 白

67) 都班淳: 前揭書, p. 217.

68) 張泳暢: 前揭書, p. 217. 「原文」“身中有三尸, 三尸之爲物, 雖無形而實魂靈鬼神之屬也. 欲使人死, 此時當得作鬼, 自放縱遊行, 享人祭酌, 是以每到庚申之日, 輒上天白司命, 道人所爲過失, 又月晦之夜, 鬼神亦上天, 白人罪狀, 大者脫紀, 紀者 三百日也, 小者 脫算, 算者 三日也. 吾未能審此事之有無也. 然天道邈遠, 鬼神難明.”

藜蘆⁶⁹⁾, 蜀漆⁷⁰⁾, 蕪荑⁷¹⁾, 雷丸⁷²⁾, 蠶蠶, 厚朴, 狼牙子, 石蠶 등의 藥物을 볼 수 있는데 이 中 實際로 驅蟲效果가 있는 것도 있다.”⁷³⁾고 하였는데 各 藥物의 效果는 註를 參考하기 바란다.

Ⅲ. 總括 및 考察

1) 道家 發生의 動機는 周代의 封建制度가 春秋, 戰國時代에 이르러 變革과 瓦解를 가져왔고 動搖中인 政敎不分의 秩序 속에 儒家들에 對한 抵抗의 現狀으로 道家가 登場했다.

a) 道家와 韓醫學의 關係를 보면, 老子의 一分爲三하는 數理는 韓醫學의 三陰三陽理論에서, 坤柔虛靜觀念은 韓醫學의 養陰派에서, ‘自然無爲’, ‘無欲’의 思想은 韓醫學의 ‘恬憺虛無’에서 各各 그 影響을 찾아볼 수 있다.

b) 또한 道家의 精氣學說은 〈老子·道德經〉, 〈莊子〉, 〈管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理致가 〈內經〉上の 精氣說과 一脈相通하고 있으니 그 影響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但 이 部分에 對한 仔細한 比較研究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道敎發生의 動機는 周代에 禮樂의 發展으로 原始宗敎가 衰함에 따라 心靈上, 生命上의 空虛를 메우기 위하여 發生되었는데, 哲學的인 面으로서의 道家와는 달리 宗敎的 團體를 이룩함으로써 매우 複雜한 派가 亂立하였으나 그 宗旨는 大同小異하였다. 그 中 魏·晉南北朝時代의 丹鼎派는 呼吸을 通해 內在的인 精, 氣, 神을 保存한다는 內丹術과 硫石水銀을 鍊制한 金丹을 服用해서 神仙이 된다는 外丹術로 크게 나뉘는데 이 部分은 韓醫養生學과 대단히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고 많은 醫家들이 實際로 關與하였다.

3) 道敎醫學이란 道敎를 側面으로 한 醫學인 바 이들은 주로 道敎經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道敎醫學의 範疇는 前述한 바와 같이 湯液, 本草, 針灸, 外丹 등 針과 藥劑를 使用하여 韓醫學과도 거의 같은 範疇에 屬하는 첫번째 範疇, 自力的으로 養生하는 導引, 調息, 內丹, 辟穀 內視, 房中等이 包含된 두 번째 範疇, 가장 宗敎的 色慾을 풍기는 符(부), 點(점), 籤(침), 呪(주), 齊(제), 祭祀(제사), 祈禱(기도), 禁忌(금기) 등 戒律的 倫理的이며 他力的인 세 번째 範疇로 나눌 수 있다.

4) 道敎醫學과 韓醫學의 歷史를 보면 初期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巫’, ‘醫’로 불리면서 巫와 醫가 未分化된 狀態로 傳來되었다가 戰國時代末期에 巫와 醫가 뚜렷이 區分되므로부터 巫는 養生·神仙思想을 끼고 道敎醫學으로 發展하였고, 醫는 陰陽五行·經絡理論을 끼고 지

69) 黃度淵：〈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77, p. 192. “藜蘆味辛能發吐 腹瀉瀉痢殺蟲蠱”

70) 上揭書：p. 191. “蜀漆(常山)苦寒截痰瘧 傷寒熱及水脹藥”

71) 上揭書：p. 235. “蕪荑味辛歐邪蟲 疥癬痔瘻滯及風”

72) 上揭書：p. 247. “雷丸味苦善殺蟲 癩癩蟲毒治兒功”

73) 都玟淳：前揭書, p. 136.

금의 韓醫學 形態로 發展하였다고 思料된다.

5) 道教와 관련있는 韓醫學家로서는 B.C. 5世紀 頃의 扁鵲, 東漢末의 華佗, 魏晉 南北朝 때의 皇甫謐, 許遜, 葛洪, 陶弘景, 曇鸞(담란), 唐代의 韋慈藏, 遜思邈, 王冰, 金·元代의 劉完素, 朱丹溪, 明代의 李時珍, 吳杰等인데 이들의 道教醫學과의 關聯된 部分은 本論을 參考하기 바란다.

6) 道教醫學의 基礎醫學觀

a) 道教醫學의 身體觀은 人間을 小宇宙로 보아 한 사람을 天地와, 또는 一個 國家에 比喩하였는데, 이는 韓醫學 人體觀에 큰 影響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 道教醫學의 解剖學이라 할 수 있는 身神에는 文獻別로 그 名稱과 數에 있어 相異한 部分은 많으나 그 쓰임에 있어서는 같으니, 存思內觀에 依해 病이 있으면 그 病의 部位에 相當하는 神의 이름을 생각하여 神을 부르고 그 存在를 생각하고, 交流하여 身體의 調和를 圖謀하고 病邪의 進入을 防止, 病을 治療함으로써 不老長生을 하는 데 쓰여졌다.

c) 三尸는 鬼神의 무리에 屬하는 것으로 人間의 過失을 庚申日마다 司命에게 報告하여 人間의 壽命을 줄이므로 해서, 이로부터 庚申信仰이 由來하였다. 또한, 現代 寄生蟲의 概念과 類似한 驅蟲의 概念이 있어서 驅蟲을 하고자 여러 가지 治療法이 講究되었다.

IV. 結 論

1. 道家와 韓醫學의 關係를 보면 老子의 一分爲三하는 數理는 韓醫學의 三陰三陽理論에서, 坤柔虛靜觀念은 韓醫學의 養陰派에서, ‘自然無爲’, ‘無慾’의 思想은 韓醫學의 ‘恬憺虛無’에서 各各 그 影響을 찾아볼 수 있다.

2. 道家의 精氣學說은 <老子·道德經>, <莊子>, <管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理致가 <內經>상의 精氣說과 一脈相通한다.

3. 魏·晉南北朝時代의 丹鼎派는 呼吸을 통해 內在의인 精, 氣, 神을 保存한다는 內丹術과 硫石水銀을 鍊制한 金丹을 服用해서 神仙이 된다는 外丹術로 크게 나뉘는데 韓醫養生學에 큰 影響을 미쳤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醫家들이 實際로 關與하였다.

4. 道教醫學의 範疇는 湯液, 本草, 針灸, 外丹 등을 使用하는 첫번째 範疇, 導引, 調息, 內丹, 辟穀, 內視, 房中 등이 包含되는 두번째 範疇, 符, 占, 籤, 呪, 齋, 祭祀, 祈禱, 禁忌 등의 宗教의인 內容을 內包하는 세번째 範疇로 나눌 수 있다.

5. 道教醫學과 韓醫學의 歷史를 보면 初期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巫’, ‘醫’로 불리면서 巫와 醫가 未分化된 狀態로 傳來되었다가 戰國時代末期에 巫와 醫가 뚜렷이 區分되었고,

그 後 巫는 道敎醫學으로 發展하였고, 醫는 지금의 韓醫學 形態로 發展하였다.

6. 道敎와 關聯있는 韓醫學家로는 扁鵲, 華佗, 皇甫謐, 許遜, 葛洪, 陶弘景, 曇鸞, 韋慈藏, 孫思邈, 王冰, 劉完素, 朱丹溪, 李時珍, 吳杰 등을 들 수 있다.

7. 道敎醫學의 身體觀은 人間을 小宇宙로 보아 한 사람을 天地와 一個 國家에 比喩하였는데, 이는 韓醫學 人體觀에 큰 影響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道敎醫學의 解剖學이라 할 수 있는 身神에는 文獻別로 相異한 部分은 많으나, 道敎에서는 身體의 調和를 圖謀하고 病邪의 進入을 防止, 病을 治療함으로써 不老長生을 圖謀하였는데, 이를 볼 때 韓醫學과 密接한 關聯을 갖음을 볼 수 있다.

9. 道敎醫學에서의 三尸說은 人間의 過失을 司命에게 報告하여 人間의 壽命을 줄이므로 庚申 信仰이 由來하였고, 또한 九蟲說이 있었는데 이것은 現代 寄生蟲의 概念과 類似한데, 두 理論 또한 人間의 生命과 關聯되니 韓醫學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本考에서는 韓醫學과 道敎의 聯關性에 對해서만 研究를 그치지단 다음에는 精氣身說, 鍊丹術, 人體觀 등과 같이 理論上 서로 符合되는 部分에 對해 比較研究할 計劃이다.

參 考 文 獻

1. 都瑛淳 : 〈道敎와 科學〉, 서울, 比達出版社, 1990.
2. 〈難經譯釋〉 : 昭人出版社.
3. 徐相潤 譯 : 〈周易〉, 서울, 韓國敎育出版公社, 1986.
4. 申東浩 譯 : 〈老子·道德經〉, 서울, 徵文出版社, 1984.
5. 楊 力 : 〈周易과 中醫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6. 李元燮 譯 : 〈管子〉, 서울, 玄岩社, 1973.
7. 李華珍 譯 : 〈列子〉, 서울, 徵文出版社, 1984.
8. 조셉니담 :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울, 乙酉文化社, 1990.
9. 許世旭 : 〈中國文化概說〉, 서울, 法文社, 1974.
10. 許世旭 譯 : 〈莊子·南華經〉, 서울, 徵文出版社, 1984.
11.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辭典類

12. 〈道敎大辭典〉 : 서울, 巨流圖書公司, 1985.
13. 〈韓醫學大辭典〉 : 臺北,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民國 75.
14. 〈漢韓大辭典〉 : 서울, 民衆書林, 1985.